

- 주요 뉴스: IMF세계은행 회의 예정 세계 성장률 전망 하향 가능성파월 의장 발언에 관심
 - 이탈리아 총리,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축소는 예상보다 조기에 가능
 - 중국, 상하이 지역 봉쇄조치 완화를 추진할 전망. 시안 지역은 봉쇄 조치 확대
 - 일본 재무상, 상황에 따라 엔화 약세는 일본 경제에 부정적 영향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통화긴축 강화 전망 및 경기둔화 우려 등이 영향
 주가 하락[-2.1%], 달러화 강세[+0.7%], 금리 상승[+13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양적긴축 조기 시행 가능성과 은행주 실적 부진 등이 원인
 유로 Stoxx600 지수는 프랑스 대선 결과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0.3%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여타 주요국과의 통화정책 차별화 등으로 '20년 6월 이후 최고치
 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0.6%, 1.7%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5월 빅스텝(0.5%p 금리인상) 예상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채권시장과 유사한 이유로 14bp 상승

※ 원/달러 환율(주간) 0.4% 상승, 한국 CDS 상승

		4/15일	4/8일	전주말대비			4/15일	4/8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휴장	4,488.3	-2.13%	국채 금리 10y	미국	휴장	2.70%	13bp	
	유럽	휴장	460.97	-0.25%		독일	휴장	0.71%	14bp	
	중국	3,211.2	3,251.9	-1.25%	CDS 5y	한국	32bp	31bp	1bp	
	일본	27,093	26,986	0.40%		중국	67bp	64bp	3bp	
	한국	2,696.1	2,700.4	-0.16%	위험 지표	EMBI+	휴장	371	4bp	
달러지수	100.50	99.80	0.71%	VIX		휴장	21.16	7.28%		
유로화	1.0810	1.0877	-0.62%	WTI유		휴장	98.26	8.84%		
환율	엔화	126.46	124.34	-1.68%		원자재	구리	휴장	472.5	-0.03%
	위안화	6.3715	6.3650	-0.10%			금	1,978.2	1,947.5	1.58%
	원화	1,229.6	1,225.1	-0.3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미국, 유럽의 주가 및 금리, 원자재 등의 변화율은 14일 결과를 기준으로 적용.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IMF·세계은행 회의 예정, 세계 성장률 전망 하향 가능성·파월 의장 발언에 관심

- 이번 주 IMF·세계은행 춘계회의가 시작(4/18~24일). 이를 통해 IMF의 세계 성장률 전망 발표(4/19일), 연준 파월 의장 및 ECB 라가르드 총재 연설(4/21일) 등이 진행될 예정. 이외에 미국 주요 연은 총재들과 영란은행 총재도 연설에 나설 계획
- 최근 IMF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1월에 제시한 금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4.4%)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주요국들은 각각 고물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강력한 봉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문제에 직면
- 브루킹스연구소의 Eswar Prasad도 금년 세계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지정학적 질서의 재편, 공급 차질,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각국의 정책 대응능력 약화 등이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
- 한편 연준 파월 의장은 5월 FOMC 개최 전 마지막 공개 발언을 통해 5월 0.5%p 금리인상 신호 발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는 이미 이러한 결정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으며, 다수의 연준 인사들 또한 지속적으로 강력한 금리인상 필요성을 강조
- 블룸버그의 Anna Wong은 연준이 5월에 0.5%p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이후에 있는 모든 FOMC에서 0.25%p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 현재 선물시장에서는 연준이 향후 정책금리를 현 수준에서 2%p 추가 인상할 것으로 추정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대통령,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에 마이클 바 전 재무부 차관보 지명

- 마이클 바 지명자는 해당 직책의 업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정치적 지지 기반도 넓다고 평가. 바 지명자는 현재 미시건대학교 교수이며, 이전에는 오바마 정권 시절 재무부 차관보로서 금융규제개혁법 제정에 크게 기여

■ 이탈리아 총리,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축소는 예상보다 조기에 가능

- Дра기 총리는 에너지 공급의 다양화가 비교적 조기에 가능하다고 언급. 이탈리아의 경우 북아프리카 알제리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을 확대하기로 결정. 이 외에 각국은 에너지 저장장치 확대, 에너지 절감 노력 강화 등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언급

■ ECB의 전문가 설문조사, 성장률 둔화 및 인플레이션 심화 예측

- 해당 조사에서 금년 인플레이션율은 6%로 2개월 전 대비 2배 수준인 반면, 금년 성장률 전망은 2.9%로 이전(4.2%) 대비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주요 원자재의 가격 상승과 소비심리 부진 등이 주요 원인

■ 중국 인민은행, 중소기업의 예금금리 상한 인하 권고. 조달비용 부담 완화가 목적

-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에게 예금금리의 상한을 10bp 낮추도록 권고했는데, 이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 예금금리의 상한이 인하되면 은행은 대출금리 상한을 낮출 여력이 확대

■ 중국, 상하이 지역 봉쇄조치 완화를 추진할 전망. 시안 지역은 봉쇄 조치 확대

- 상하이시 정부는 주민 반발 및 경제 충격 등을 고려하여 4/20일까지 '제로 코로나' 대신 '전염 확산 방지'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 반면 시안시 정부는 16일 0시부터 19일 24시까지 사회적 통제를 시행. 다만 주요 생산시설 및 사업장은 정상 가동

■ 중국 3월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 등이 주요 원인

- 3월 주택가격은 전년동월비 1.5% 올라 전월(2.0%) 대비 둔화되면서 '15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관련 봉쇄조치 강화 등으로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악화되면서 주택수요 부진이 지속

■ 일본 재무상, 상황에 따라 엔화 약세는 일본 경제에 부정적 영향

- 스즈키 재무상은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의 상승 영향을 기업들이 제품가격 인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진단. 특히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을 상회하는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4/15 현지시각 기준)

- 중국 3월 주택가격지수(전년동월비): 1.5%, 2월(2.0%), 예상치(-)

■ 주요 경제 이벤트(4/18 현지시각 기준)

- 미국 4월 NAHB 주택시장지수, 독일 및 영국 등은 부활절 휴장
- 중국 3월 고정자산투자, 산업생산, 소매매출, 1/4분기 성장률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국채수익률, 일방적인 상승 전망을 경계할 필요 - 블룸버그

(U.S. Bond Market Gives Notice It's No Longer a One-Way Street)

- 최근 주요 국채수익률은 변동성이 확대. 이는 연준의 긴축기조에 따른 상승 압력과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가능성 등으로 정책금리 인상폭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 결과. 경기둔화 우려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
- 한편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전망 영향으로 10년물 수익률의 상승이 확대되면서 수익률곡선의 스티프닝 현상이 발생. 다만 향후 연기금의 장기국채 투자 확대 예상 등으로 평탄화 압력은 증대될 가능성. 이러한 상황은 채권시장 예측의 어려움을 가중

■ 우크라이나 전쟁, 신흥국의 부채 문제를 증폭 - WSJ

(Ukraine War Deepens Debt Woes Across Developing World)

- 다수의 신흥국은 증가하는 코로나 관련 비용 등으로 부채부담이 증가.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식량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신흥국의 수입품에 대한 비용부담 증가 및 부채상환의 어려움 등이 발생
- 일례로 스리랑카는 외채상환 중단하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 저소득 국가 중 60%는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으로 채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 이러한 상황에서 고수익을 노린 무분별한 신흥국 국채투자 등은 채무 조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

■ 글로벌 경제, 인플레이션 보다 과도한 긴축에 따른 경기둔화 위험이 큰 편 - 블룸버그

(Recession Risks Duel Resilience Hopes in Global Economy Outlook)

■ 미국유럽의 친환경 에너지 촉진 정책,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예상 - WSJ

(The Coming Green-Energy Inflation)

■ 미국 1/4분기 실적, 고물가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이익증가 둔화 전망 - Financial Times

(War and inflation set to drag on corporate profits despite rising revenues)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